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 상 : LH 사장상

부 문 : 초등부문 전체

수상자 : 밀알두레학교 4학년 박은우

<3.2 Km 사랑>

“은우야! 일어나! 7시야!”

딱 붙은 두 눈을 겨우 뜨면 엄마는 벌써 도시락과 아침 식사를 차려 두시고 씻으러 가셨다. 아빠는 내가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신다.

“은우야, 다 먹었어? 옷은 다 입었니? 제발 서둘러라! 빨리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나서 매일 아침 우리 집의 모습이다.

한 번 아니 두 번 정도는 내가 빨리 준비 한 때도 있었다는 것은 꼭 말하고 싶다.

아침마다 우리 집이 시끌벅적한 이유는 엄마도 나랑 같이 학교에 가기 때문이다.

엄마는 학생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에 일하러 가신다.

학교 행정실은 코로나가 심해져도 절대 문을 닫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엄마와 같이 학교에 가서 돌봄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나는 남양주시 왕자궁 마을에 있는 밀알두레학교에 다니는데 왕자궁 마을은 도시가 끝나고 시골 풍경이 시작 되는 곳에 있다. 그래서 왕자궁 마을까지 가는 버스가 두 대 밖에 없다. 게다가 한 대를 놓치면 30분~40분을 기다려야 한다.

원래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알미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어서 스쿨버스까지 다니지 않는다.

이것이 코로나가 시작하고 우리 집이 더 바빠진 이유이다!

엄마가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아빠가 매일 아침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셔서 준비 시간이 30분이나 빨라졌다.

아빠는 우리를 학교에 데려다주시고 차를 다시 집에 가져다 두고 지하철로 출근하신다.

아빠는 나의 히어로(영웅)이다.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늘 웃으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일찍 일어나야 하고 정신없을 때도 있지만 아빠와 함께 학교에 가는 길은 구름길을 달리는 것 같이 포근하다.

하지만 나는 편한데 아빠는 출근이 늦어져 퇴근을 늦게 하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맛있는 간식이 생기면 다 먹어버리고 싶지만 반을 똑 떼어서(가끔은 반의 반일 때도 있지만) 가방에 넣어 놓았다가 아빠를 드린다.

아빠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다.

돌봄 수업을 마치고 엄마가 퇴근을 하면 우리는 걸어서 집으로 온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버스시간이 딱 맞아서 버스를 탈 때도 있지만 시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는 3.2Km이다. 3.2Km가 엄청 먼 거리 인 것 같지만 엄마와
같이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사진도 찍다보면 금방 현관문 앞이다.

여러 가지 풀꽃들이랑 벚꽃이 피는 것도 보고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 잎을 잡아
보기도 했다. 빨갭게 익은 앵두 같은 버찌를 따느라 집에 오는 길이 더 짧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은 장화를 신고 고인 물에서 찰방찰방 뛰기도 하고 폭포수처럼
흘러오는 물을 다리를 짹! 벌리고 뛰어 넘다 보면 정글 탐험을 하는 것 같아서
신이난다.

요즈음에는 은행열매를 피하느라 강총강총 뛰어 다닌다.

엄마랑 같이 걸어오는 길은 참 좋다.

사실 다리가 아플 때도 있지만 내 가방이랑 짐을 다 들고 걸어오는 엄마를 보면
다리 아프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썩 들어간다.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씩씩하고
즐겁게 걸어온다.

아빠는 엄마와 나를 위해서, 엄마는 아빠와 나를 위해서, 나는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서로를 생각하는 우리 집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3.2Km 길을 오고 가며 서로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 상 : LH 사장상

부 문 : 중등부문 전체

수상자 : 안산 원곡중학교 3학년 황나영

<행복한 나의 집>

나의 옛집은 1호선 철도 옆
주변에는 온통
재개발로 들어선 높은 건물들
그 사이에 남겨진 낡은 빌라에서
나는 행복을 배웠다

서로의 눈을 맞추고 먹는 저녁이
얼마나 따뜻한지
고개 숙인 나를 감싸는 손길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밤마다 눈을 감으면 들려왔던
책 읽어주는 엄마 목소리는 자장가
가끔씩 내 발을 주무르며 늘어났던
아빠의 취중진담은 하나의 시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소중한 기억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그 집이 여름에는 유난히 덥고
겨울에는 유난히 추웠다는 것을
땅굴마냥 어두웠다는 것을
힘겹게 철도를 가르는 기차소리에
언제나 시끄러웠다는 것을

나의 옛집은 1호선 철도 옆
갓 지은 밥보다 따스한 말이 오가고
기차소리보다 큰 웃음소리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나는 행복을 배웠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 상 : LH 사장상

부 문 : 고등부문 전체

수상자 : 배곧고등학교 2학년 김연희

<행복한 나의 집>

들로 시작했지만 하나만 남는 것들이 많아요
오른쪽 밑창만 떨어진 신발도 그렇고
놓쳐버린 젓가락 하나도 그렇죠
엄마와 아빠도 그랬나 봐요

우리 집 여름 휴가는 집 앞 나들이
아빠는 커다란 손으로 머리를 묶어줘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의 손길이
빠져나온 귀 옆 머리카락까지 모두 챙겨줘요
예쁜 구슬이나 보석은 없지만
힘 좋은 검정 고무줄은 절대 풀리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밑 시원한 그늘에 앉아
김밥집에서 산 김밥을 꺼내 먹어요
은박지로 돌돌 둘러싸인 김밥
상처받지 않도록 포장된 모습이
꼭 언제나 웃는 아빠 얼굴 같은 건
내가 너무 빨리 커버린 탓일까요

아빠는 돛자리 위에 눈을 감고 누워있다가,
주르륵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요
피곤해서 하품했다고 하는데
아마 아빠는 모르는 게 틀림없어요
한쪽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단 걸 말이에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초록빛 여름 바람
나는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봐요
우리의 휴가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되새기는데,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건 아마 따가운 햇살 때문이겠죠
매미 소리가 구슬프게 들리는 행복한 우리 집이에요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초등 시부문

수상자 : 서울 중평초등학교 6학년 박재우

<행복한 나의 집>

짜장면을 다 먹고
잊고 있던 군만두를 발견했을 때
동생 입에 넣어 준다

구운 양파 뒤에
숨어 있던 마지막
삼겹살 한 점을 찾았을 때
어머니 접시에 놓아 준다

동생 웃음이 귀여워
온 가족 웃음도 그치지 않는다

수술실 앞
초조한 내 손에
희망을 쥐어 주던
아버지 사랑 잊을 수 없다

울고 싶지만
견디던 어머니 어두운 얼굴도
잊히지 않는다

소소한
행복들은
얼마나 소중한가

같이 있으면
때론 알밋기도 하지만
떨어지면 불안하다

그런 매력을
기억하고 있다, 집은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초등 시부문

수상자 : 서울 상경등학교 6학년 정서준

<행복한 나의 집>

찌르레기 수다
시끄러워 눈 뜨니
집 안에 아무도 없다

온기가 가출한
텅 빈 집은 을씨년스럽다

포근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지만 더 외롭다

공원에 가니
수국 내음 시끌벅적이다
외로움이 한 손갈 줄어든다

석양이
도봉산 모퉁이를 돌아
보고픈 어머니가
돌아 올 것 같아 집으로 간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다, 달음박질 친다

현관문 틈으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바글바글 흐른다

모처럼 일찍 퇴근한
아버지 어머니 웃음 사이로
온기가 넘친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맞벌이, 아버지 어머니는
빈 집을 건디는 나를 꼼꼼히 읽는다

자주 외롭지만
보일러 보다 더 따뜻한
부모님이 있어 행복에 겹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초등 산문 부문

수상자 : 봉성초등학교 6학년 강하영

<행복한 나의 집>

우리 가족은 봉화군 봉성면 촌구석에서 산다. 나는 그 조용한 곳에서 엄마, 아빠, 10살 차이나는 대학생 언니, 12살 차이나는 네일 아티스트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 나는 막둥이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촌에서 살다보니 엄마 아빠가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 3남매는 엄마 아빠를 자주 도와준다. 하지만 요즘은 언니랑 오빠가 다 나가 살고 있어서 나만 엄마 아빠 일을 도와주고 있다. 근데 나도 점점 농사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매일매일 공부핑계로 혼자 집에 남아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내가 동생만 있었어도 나대신 동생이 농사일 도와 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찾아왔다. 바로 시험 날. 이번 시험은 아주 중요하다. 내년 중학교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은 올백 맞자! 나는 제발 어젯밤을 샌 거에 대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겐 성적표가 나오는 그 2일이 2년과 같았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종이를 펼쳤다. 나는 성적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뭐? 평균 60점? 이게 뭐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성적표를 찢었다.

어째서 오늘 하늘이 이렇게 푸를까? 난 죄 없는 하늘만 닮았다. 나는 땅이 꺼지듯 한숨을 내쉬며 집에 들어갔다.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하셨다. 나는 머뭇거렸다. 엄마는 버럭 화부터 내셨다. "너 또 점수 낮게 나왔지? 그니까 엄마가 뭐라 했어? 공부 하라고 했지!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야." 나는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성을 냈다.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 그니까 누가 농사일 도와달래? 그냥 나 공부하게 나왔으면 됐잖아." 그때 아빠가 내 등을 때리시며 말씀하셨다. "야! 너 엄마 임신했어. 스트레스 주지마. 알겠어?"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가 임신을 하다니! 그럼 이제 13살 차이나는 동생이 생기는 것인가? 난 다짜고짜 물었다. "몇 개월 남았는데?" 엄마는 6개월 남았다고 말씀하셨다. '아 그럼 그 뱃살이 아기였구나. 웬지 갑자기 살이 찼다 했어.' 나는 춤을 추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가지 않아 무너졌다. 아니 아기 하나 생겼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나는 매일 무관심 속에서 살아갔다. 난 화가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위로를 받으려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위로도 못 할망정 나를 더 기분 나쁘게 했다. "야 이제야 언니 마음이 이해가 되냐? 너 태어났을 때도 언니가 그랬어." 나는 제대로 화가 났다. 난 빠진 상태로 여섯 달을 보냈다. 집이란 단어가 나에겐 최악이다. 최악 중에 최악. 나는 돌을 걸어차며 집으로 향했다. 근데 이게 원 떡이냐!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 춤을 추고 난리도 아니었다. 하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지만 걱정이 되기는 했다. 나는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어디야?” “엄마가 아기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어. 3일만 언니랑 있어. 아기 데리고 갈게.” 나는 감격스러웠다. 드디어 아기가 오다니. 난 아기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아기가 집에 오는 날! 나는 너무 설렜다. 그때 밖에서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나는 곧바로 아기에게 뛰어갔다. 밖에 나가자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난 아기 손을 잡았다. “안녕 아가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나는 네가 와서 너무 행복해.” 그때 엄마가 한마디 했다. “그래. 네가 우리 집을 행복하게 해줬구나. 고마워.” 그렇게 처음으로 아기가 집에 온 날이 지나고 내일이 찾아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는 날이라 아빠 엄마도 긴장을 하신 것 같다. 원래 나도 도와드려야 하지만 엄마가 주말이라 폭 자라고 하셔서 늦게까지 잘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내 상상일 뿐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난 엄마 말대로 폭 잘려고 침대에 누웠다. 근데 누운지 1분도 안됐는데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뭐야?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며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아빠가 머리를 굴적이며 “아빠가 실수로 아기 어깨를 쳤지 뭐냐? 하하” 난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근데 이번엔 아기의 웃음소리가 아주 크게 나지 않는가? 난 잠을 포기하고 엄마 아빠를 도와주기로 했다. 밖에 나가보니 엄마는 아기의 귀저기를 갈아주면서 아기를 웃겨주고 있고, 아빠는 부엌에서 분유를 타고 있었다. 새로운 가족이 온 만큼 우리도 조금 힘들겠지만 아기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우리 집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었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초등 산문 부문

수상자 : 광주 화개초등학교 6학년 김도현

<꿀벌 미츠의 집을 찾아서>

옛날에 미츠라는 명량한 벌이 살고 있었어요. 미츠가 사는 벌집에선 3가지 계급이 존재했지요. 미츠같은 일반 벌과 모든 벌을 다스리는 여왕벌 그리고 벌들에게 영웅이라고 불리는 ‘커만도스’예요. 커만도스는 일반 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죠. 미츠는 그런 커만도스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미츠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죠. 그것이 바로 ‘행복한 미츠의 집’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집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나타난 양봉업자들이 자고 있던 여왕벌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 일을 알아챈 꿀벌들과 커만도스는 양봉업자들을 쫓아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는데 양봉업자들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곳은 양봉장이었어요. 그곳으로 양봉업자가 들어가자 벌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자 아주 많은 벌들이 자신들의 집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양봉업자들은 여왕벌을 놔주었죠. 여왕벌과 벌들은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른 벌이 날아와

“어머, 너희들 신입이구나? 내가 여기에 대해 설명해줄게. 여기는 벌들의 천국이야, 우린 여기서 집을 만들어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먹이를 주지, 그렇게 먹고 일하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집이 사라져. 하지만 상관없어. 먹을 것도 주고 열심히 집도 짓게 해주는데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 아니겠어? 너희도 여기에서 잘살아 봐.”

이렇게 말하곤 그 벌은 떠나버렸어요. 벌들은 당황했지만, 그 말을 믿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짓고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밥을 줬죠. 그제서야 벌들은 그 벌의 말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다들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집을 짓고 있지만 미츠는 왠지 수상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벌의 말을 쉽게 믿을 미츠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미츠는 의심을 풀기 위해 점심시간에 밥 먹는 척을 하고 양봉업자들이 있는 곳에 가보았어요. 미츠는 안 들키기 위해 문에 붙어서 양봉업자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어요.

“오늘 수입 관찮은데, 벌들은 순진하긴 벌들이 만든 집을 가지고 와서 꿀을 채취해서 아주 비싼 값에 팔아넘긴다는 것도 모르고 우릴 위해 열심히 집을 만들다니 멍청하긴, 하하하.”

미츠는 이 말을 듣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츠는 여왕벌 앞에 날아와 사실을 말했어요. 하지만 여왕벌은 미츠의 말을 믿기는커녕 미츠에게 꾸중을 했어요.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미츠는 너무나 슬퍼서 다른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곳에서 미츠가 혼자 서럽게 평평 울고 있었죠. 근데 그때 커만도스 중에 한 명인 루카가 다가왔어요.

“너 정말 아까 여왕님에게 한 말 진짜니?”

미츠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의 대상이 말을 걸어줘 아주 기뻐요. 울던 눈물은 닦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미츠가 말하자 루카가 말했어요.

“사실 나도 이곳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단다 아까 네가 여왕님께 한 말을 듣고 나도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봤더니 인간 녀석들이 소중한 우리 집을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에 팔고 있더군. 얼마나 기가 차던지, 우리같이 진실을 밝히지 않겠니?”

그 말을 들은 미츠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수락했어요.

루카와 미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작전을 세웠어요. 1. 미츠가 벌들을 불러모은다. 2. 루카가 여왕벌을 설득시켜 진실을 보게 한다. 3. 인간들을 공격한다. 4. 이곳에서 나간다. 아주 좋고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다음날 루카와 미츠는 작전을 실천에 옮겼어요. 미츠는 벌들을 불러모았어요. 그 시간 루카는 여왕벌을 설득시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설득해 모든 벌들과 여왕벌이 모였어요. 벌들 사이에서 미츠가 외쳤어요.

“여러분 이제 모두 이곳의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미츠와 모든 벌들은 창문을 통해 벌들이 힘들 게 만든 집이 다 부서지고 열심히 모은 꿀만 비싸게 팔리고 있는 풍경을 보게 됐어요.

그 풍경을 본 벌들은 크게 분노해 문을 두드려 인간들이 나오게 한 다음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찢었습니다. 그렇게 마구 쏘인 인간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벌들은 화가 다 풀리지 않았지만 너그럽게 용서해주며 모든 벌들은 양봉장에 나와 자유를 만끽했어요. 그리고 여왕벌은 미츠에게 못 믿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여왕벌은 사과의 의미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미츠는 그럼 커만도스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했어요. 여왕벌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미츠는 커만도스가 되어 신나서 하늘 멀리로 날았답니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중등 시 부문

수상자 : 현대중학교 3학년 정여은

<행복한 나의 집 1>

화가 나서 버럭 나와버린 집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나
쭈그려 앉아, 갈 곳 없네

잠그지 못한 수도꼭지처럼 흘러내리는 마음
주워 담을 수가 없어 나
현관문을 닫고 기대, 숨을 뱉네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온 생일
예기치 못한 탓에 눈을 깜빡이는 나
거실에 멀뚱히 서서, 환히 웃네

새벽녘 흔들리는 창문 탓인지
유난히 잠이 안 오는 날 나
가만히 집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분노, 슬픔, 그리고 사랑 같은 것들이 섞인
행복을 느끼며
그렇게 잠이 드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행복한 나의 집 2>

다녀왔습니다
그 소리에 돌아보는 사람들은
눈웃음이 아주 예쁜 우리 엄마,
축구보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빠,
며칠 전 내 교복을 입고 갔던 우리 오빠,

멍!
어라, 행복이 너도 있었구나.

잘 다녀왔니
그 소리에 대답하는 사람은
집이 최고라고 입버릇처럼 외는 사람
바로 나.

멍!
그리고 우리 가족 막내 행복이.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사실 난 집에서 쉴 수 있어서
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행복이까지.
집에 있는 모두가 내 행복이니까
집이 최고인 거지.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행복한 나의 집 3>

학교에서 옆드려 자면
빵에 달는 책상이 너무 딱딱해
집에 있는 폭신한 베개가 떠오른다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면
먹어도 먹어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
따끈한 집밥이 아른거린다

싫은 소리 잔뜩 들은 날이면
상처받은 마음이 쿡쿡 아려서
애착 이불 덮고 영영 울어버리고 싶다

집은 마술상자 같다
온갖 종류의 아픔들을
행복으로 바꿔게끔 도와주니까

나는 매일매일 상처입어도
나에게 행복을 주는 집으로 갈 때만큼은
신나는 발걸음을 옮긴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중등 시 부문

수상자 : 새이레기독중학교 3학년 정지인

<소리>

길고양이들이 냐옹냐옹 거리는
마당을 지나 대문을 들어서면
내 귀를 간지럽히는
할머니의 바이올린 소리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
먹을 것을 가지고
부엌을 지나 계단에 오르면
내 입가에 미소가 돌게하는
할아버지 텔레비전 소리

내 발로 쿵쿵거리며
계단을 지나 2층으로 가면
나를 부르는 듯한
엄마의 피아노 소리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들리는 소리
우리 집 특유의 소리
행복을 부르는 소리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중등 산문 부문

수상자 : 초지중학교 2학년 김민준

<행복한 아빠의 집은 행복하지 않다>

-아빠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집에 늦게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가 소파에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제야 오늘이 민준이의 생일이었다는 생각이 났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생일인데 같이 있어 주지도 못하고..아빠 이해해 줄 거지?”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친구들과 좀 나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놀아.” 민준이에게 돈을 주고 침대로 들어 오니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었다. “여보. 오늘 민준이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줬어?” “아 요즘 애들은 미역국 끓여주고 막 생일파티 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냥 돈으로 줬더니 좋아하던데?” “역시 자기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어서 그런가 요즘 트렌드를 잘 아는 것 같아.” “그런가?” 나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민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역시나 기대한 내가 바보였다. 케이크나 선물을 바란 건 아니었다. 그저 나는..... 아침이었다. 우유를 마시려 냉장고를 여는데 냉장고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을 보았다. ‘식탁 위에 5만원 뒀어. 친구들이랑 놀러가.’ 엄마는 알고있을까.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걸. 친구들이랑 놀러가는거녕 내가 생일인 걸 아는 친구도 없다는 걸. 생일이 행복하고 즐겁기는커녕 빨리 지나가버렸으면 좋겠다는 걸. 오늘 하루를 게임하는데 다 썼다. 그러나 오늘 한 게임은 어제 했던 게임보다 재미있지 않았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 하루종일 모니터 화면만 보느라 눈은 뻑뻑해져 있었고 머리까지 아팠다. 아들의 생일인데 아빠라는 인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철컹—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하냐? 으휴. 생일인데 뭐 좀 했냐? 부모 없어도 어디 좀 나가고 그래라. 제발 내일은 집에서 좀 나가있어. 내일 엄마 친구들 올거래.”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나만 남았다. 지금은 11시 56분. 내 생일이 끝나기까지 4분, 남았다.

-엄마

나는 생일은 별로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지가 원데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선물을 주며 축하해야 하지? 오히려 자기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난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는데. 말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지 교무실에서 잔업무나 하는 실무사다.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지금쯤 정규직 교사가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되어있었을텐데...그래도 생일은 생일이니까, 아침에 식탁에 5만원을 놓고 나왔다. 그러고선 그 일을 까먹고 있었는데, 저녁에 아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나 돈 필요 없어.” 5만원을 화장대에 올려놓고는 씩하고 나가버리는데,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다. 고마운 것도 모르고. 돈이라도 주는 부모가 얼마나 감사한건지 모르는구나. 어렸을 때, 난 내 생일에 엄마를 잃었어. 아빠의 손이 얼마나 큰지 엄마의 얼굴이 한 손에 다 들어가더라. 그날 이후로 엄마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사회생활 할 때 티가 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게 나야.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 결국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한게 언제쯤이었더라...갑자기 겁이 난다.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있는 건 아닐까?

-민준

다음날도 별로 다를건 없었다. 엄마는 자고 아빠는 회사에 나갔다. 그렇게 우리 집은 잠시 평화로운 듯 했다. 아빠가 오기 전까지는.

-아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거지? 같은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까지 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론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손에 남아있는 이 기분 나쁜 감촉...설마...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엄마

어제저녁, 남편이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들어왔다. 기분이 좋지않아보였다.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어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이는 술만 마시면 과격해지는 성향이 있다. “야 너, 아빠가 왔는데에 인사도 안하니?” 제발 민준아...제발...민준이가 무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너...표정이 왜 그따구냐.” “술 좀 그만 먹고 오세요. 짜증나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여,여보 우리 방으로 들어갈까요?” “아니, 여보. 이 자식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자기는 방에 들어가 있어. 빨리.”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어떤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누군가가 때리는 소리와 누군가가 맞는 소리만 들릴 뿐.

-----18년 후-----

-아빠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난 한 가정의 아빠가 되었다. 솔직히 내가 아빠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난 아빠노릇이 처음이기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빠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아빠는 날 아빠의 소유물로 여겼다. 난 아빠의 소유물이었기에 내 표정, 행동, 생각 모든 것이 아빠의 맘에 들어야했다. 맘에 들지 않는 날엔, 그저 폭력뿐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 당연히 폭력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쓰지 않는다. 이게 정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말 우리 아빠가 그토록 노래부르던 행복한 우리집을 만드는 방법이다. 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우리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우

오늘 아빠와 놀이공원에 다녀왔다 놀이기구 타는 거가 무서웠는데 아빠랑 엄마가 손 잡아줘서 안 무서워졌다. 같이 솜사탕도 먹고 꽃이 엄청 많은 정원에서 사진도 찍었다. 정말정말 재미있었다. 롤러코스터는. 키가 작아서 못탄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기로 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중등 산문 부문

수상자 : 원주삼육중학교 3학년 송승원

<누가를 위하여 좋은 울린다>¹⁾

나랑은 세 살 터울인 우리 형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희한하게도 항상 자전거를 타고 통학했다. “그것 참 희한한 일이지, 학교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통학 버스가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용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고.” 우리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정말 우리 형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비가 조금 올 땐 빗방울을 뚫어가면서 다녔고, 비가 많이 올 땐 내려서 끌고 다녔다. 아무리 더워도 땀으로 옷을 온통 적실망정 차를 타는 법은 없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신 우리 할머니 덕분에 형과 나는 복음서에서 따온 이름을 얻어야 했다. 그럴 거였음 차라리 요한, 같은 걸로 해주지. 야속하게도 형은 마가, 나는 누가가 되었다. 누가복음의 그 누가 말이다. 줄지에 ‘김누가’라는 이름을 얻은 나는 만 십사 년 하고도 몇 개월의 일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왔다. 학교에서 부여의 사출도를 배울 땐 되게 힘들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리고 누가. 생각해보니 저기 우리 형도 있었다. 형은 이 파트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형은 어릴 때부터 줄곧 뭐든 잘했다. 그냥 공부만 잘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짜증나게 다 잘했다.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어떤 종목을 가져와도 다 졌다. 그림도 잘 그리고 악기도 잘 다루고. 물수제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뜨나 대결해도 졌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낚싯바늘에 떡밥 끼우기 정도였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장래희망이 어부인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때도 고기는 형이 더 많이 낚았다. 불공평한 세상.

내 자전거는 아직도 새 거 같은데, 잘 안 타서 그럴지 저것도 산 지 삼 년은 족히 지났을 것이다. 할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건데, 진한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무늬가 조금 부끄러워서 잘 안 타고 다녔다. 애들이 ‘누가바 자전거’라며 놀릴 게 뻔했다. 그에 반해 형 자전거는 조금 녹슬어있었다. 핸들의 종도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다. 비를 그렇게 맞아대니 그럴 수밖에. 가끔 보면 얼마나 험하게 타는 건지 바퀴 표면도 매끄러웠다. 저 자전거, 한 이 년은 탔던가?

2학년이 되자 한문 시간이 생겼는데, 첫 시간에 내 이름을 한자로 써오라는 숙제를 받았다. 내 이름은 Luke인데. 아무튼 숙제는 해가야 했기에 대충 인터넷과 한자 사전을 뒤져 보기로 했다. 가만, 이거 이름이니까. 막 짓는 건 안 된다. 이 생각이 든 것은 노트에 ‘좁을 누’와 ‘절 가’ 자를 써넣고 난 뒤였다. 복음서에서 따온 이름

1) 제목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에서 따왔습니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의 뜻이 알고 보니 좁은 절이라, 이것만큼 웃긴 이름도 없겠다. 다른 이름을 찾아야 했다.

사실 우리 형제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내 탓인 것 같기는 하다. 형과 비교되는 게 싫어서 거리를 뒀기 때문이다. 내가 형에게 마지막으로 한 칭찬은 형 자전거 잘 탄다, 정도였다. 한 손 놓고 자전거를 타던 형에게 한 말이었다. 대판 싸운 건 아니지만 형도 나와 안전거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 대화에서는 자전거 핸들의 종처럼 조심하라는 의미의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조심해야 할 만큼 가깝지 않았다. 종소리만큼 청아한 소리가 들리질 않았다. 따르릉은 삭막하게도 전화벨 소리뿐이었다. 집이 삭막해져갔다.

나는 어릴 적 가끔 동네 공터에 친구 원준이랑 캐치볼을 하려고 글러브 들고 풀래풀래 걸어갔던 기억이 있다. 그때가 아마 아홉 살쯤이었을 거다. 어린 손에게는 아직 조금 큰 공을 주고받고 하는 그 단순한 놀이를 지치지 않고 몇 시간씩 했었다. 그러다 언젠가 원준이가 알루미늄 배트 한 자루를 들고 왔다. 그건 신세계였다. 공에 배트를 갖다 댈 때 느껴지는 쾌감은 단순히 글러브로 내게 날아오는 공을 막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 뒤로 더 자주 공터로 놀러나갔다.

그 주 목요일은 비가 적당히 오는 날이었다. 일주일의 가운데인 이 날은 날씨 빼고 적당한 게 없었다. 아침은 최악이었다. 씻다가 칫솔을 부러뜨렸고, 샤워기를 떨어뜨려 깨뜨렸다. 습한 장마철이라 옷은 눅눅하다 못해 축축했고 늦게 일어난 탓에 미처 말릴 틈도 없이 가야했다. 다행히 학교 가선 잘 풀렸다. 숙제 안 한 과목이 시간표에서 어쩌다 빠졌고, 모둠도 원하는 대로 짜였다. 급식 메뉴도 최고였다. 좋은 일만 있다 싶을 때쯤, 그러니까 학교가 끝났을 때, 전화가 왔다. 엄마였다. 병원이었다.

아홉 살의 어느 가을날이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원준이와 놀고 있을 때, 4학년 큰형님들이 와서는 우리와 같이 시합을 하자고 했다. 그 형들은 우리보다 두 살이나 많았고 세 명이었기에 나는 마가 형을 불렀다. 3회까지 하기로 한 시합은 2회 말이 되도록 점수가 나지를 않았다. 원준이는 공을 잘 던졌는데, 치는 건 잘 못했다. 형도 이렇다 할 활약은 없었다. 그리고 3회 말, 우리 공격 때 나는 첫 타자로 나가 2루타를 쳤다. 이제 두 사람이 아웃되더라도 한번은 내게 기회가 올 터였다. 잠깐 숨을 고르던 나는 강 소리를 들었다. 형이었다. 형이 홈런을 쳤다. 형은 무려 5학년이었고 운동을 잘했다. 우리는 이겼지만 나는 진 기분을 느꼈다. 그건 내가 본 가장 멀리 간 홈런이었다.

병원에 급히 가자 엄마와 아빠는 날 기다리고 계셨다. 형은 병상에 누워있었다. 다리에 깁스를 했고 얼굴에 붕대를 감았다. 모양이 썩 좋지 못했다. 그리고 나를 보자 피식 웃었다. “에? 웃어? 왜?” ”내가 너한테 형 같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자전거 타다 넘어졌다니 이게 웬 창피람.“ 생각해 보니 비가 적당히 오는 날이었다. 형은 타고 갈까 내려서 갈까 고민하다 그냥 타고 갔고, 낡은 자전거는 형을 태운 채 횡단보도서 쓰러진 것이다. ”아니 잠깐, 뭐라고?“ ”다시 말해주?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형이 되고 싶었다고.“ 오, 이런.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 아빠가 형과 나를 동시에 끌어안았다. 내 손이 형 얼굴의 상처에 닿았다. 아프다고 하는 형은 투박한 종소리를 내며 조심하라고 하지만 웃고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서먹했던 사이는 사실 조금 어긋난 채로 쌓인 오해들 때문이었다. 자전거도 그냥 내가 잘 탄다고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탕단다. 자전거를 잘 타는 모습이 형다워 보일까봐. 형은 내가 자신을 형처럼 따르게끔 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모든 걸 잘하는 형과 비교 당하기 싫어서 멀어지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다. 형이 나를 멍청이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형은 형이었다. 형은 무려 열여덟 살이었고 어른스러웠다. 나는 늦었지만 우리는 가까워질 것이다. 그건 그 주 목요일 가장 멀리 친 흥련이었다.

우리 집은 조금씩 종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아직 청아한 소리는 안 나지만 둔탁하게나마 내고 있다. 제각기 소리가 다른 이 종들을 나는 하나로 묶을 것이다. 나는 누가다. 묶을 누에 집 가. 내가 아니면 누가 그릴 수 있겠는가?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고등 시 부문

수상자 : 안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고은결

<행복한 나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어머니
눈물은 먹다 남은 반찬보다 미련한 거라
물을 틀어놓고 우시던 어머니 울음에
쉽게 하수구가 막히곤 했다
그때마다 반대편으로 역류하는 슬픔이 있었다

녹슨 우체통은 고지서의 무게를 못 견뎌 떨어졌다
퇴역한 전쟁영웅처럼
지난 영광의 먼지만을 터시던 아버지는
이젠 밤의 핸들을 잡고
영광에 취한 양복쟁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안을 갹아먹듯 곰팡이는 번져간다
온기는 냉기를 향해,
고기압은 저기압을 향해,
빛은 어둠을 향해,
가장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던 형은
끝도 없이 뺏어나가는 바닥을 향해

폭염은 좀처럼 우리 집을 떠날 줄을 몰랐고
에어컨과 세탁기 둘 중 하나는 사치였다
언제 떨어져버릴지 모르는 전기처럼
내 꿈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지붕이 있어도 비는 들이쳤다
가족이 있어도 품은 없었다
냥만이 있어도 여유는 없었다
마주치는 눈빛이 가여워
우리는 마주칠 때마다 웃었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고등 시 부문

수상자 : 서울혜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서희

<햇살 가족>

열 평 남짓 단칸방
창문으로 손바닥만한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는 집
옹기종기 모여앉아 햇빛을 맞으며
돌아오실 부모님을 기다리면
창문 밖으로 넘치던 우리 삼남매의 웃음

남들의 행복의 기준에
한참을 못 미쳐도
우리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와
환한 노을 뿌려놓는 부모님 때문

보글보글 된장찌개 냄새
금세 단칸방에 퍼지고
종알종알 쏟아놓은 우리의 말들을
귀하게 담는 부모님
그것이 부모님의 낙이었다는 것을
그 때는 몰랐던 우리

동그란 밥상에 둘러 앉아
서로에게 반찬을 올려주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식물에게 물을 주듯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 때는 몰랐을 부모님

지금은
창이 넓은 큰 집으로 이사 와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각자의 방이 생겼지만
그 시절 반지하 단칸방을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서로에게 손바닥만한 햇살처럼
귀하고 따듯했던 시절이었기 때문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고등 산문 부문

수상자 : 마산삼진고등학교 3학년 이주영

<집과 행복의 상관관계>

“엄마! 또 배수구 막혔어!”

나는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다가 막힌 배수구를 보며 거실에 있는 엄마에게 소리쳤다. 발 소리를 쿵쿵 내며 벌써부터 화가 난 듯 엄마는 내가 씻고 있는 화장실로 온다.

“이 놈의 배수구는 맨날 막혀? 이사를 가던가 해야지”

나는 이사라는 엄마의 말에 번뜩 화색이 돌았다.

“이사? 엄마 우리 이사 갈거야?”

“으이구, 딸년아 말이 그럴다는 거지. 네가 돈 버니?”

나는 내가 태어난 19년 전부터 줄곧 이 주택에서 자라왔다. 방2개에 거실 하나, 좁은 주방 하나. 그리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불평 없이 살았다. 가끔 저렇게 변수도 생겨났지만. 하지만 2년 전부터 나는 우리 집이 못마땅했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는 2명의 친한 친구가 생겼다. 민지와 아름이. 우리 셋은 공감대가 많았고, 그런 만큼 단기간에 친해졌다. 셋 다 모난 성격이 아니라 그런지 무려 한 해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냈다. 1학년 마지막 겨울방학을 시작하고 학교를 오지 않는 한 달의 공백기가 생겼다. 민지는 아름이와 나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 방학 때 각자 집 돌아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 어때?”

나는 민지의 제안을 단번에 수긍했다. 셋이서 하는 공부는 왜인지 즐거울 것 같았기에. 아름이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개구진 표정으로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학 첫 째 주는 민지 집, 둘째 주는 아름이 집, 셋 째 주는 우리 집에 가기로 했다. 방학이 시작되고 오늘은 민지 집에 가는 첫 날 이었다. 민지는 아파트에 산다고 했다. 주변 친구들 말로는 민지가 사는 아파트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제일로 좋은 아파트라고 했다. 나는 집에서 출발해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민지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나는 몸이 경직 되었다. 내가 생각 한 아파트와 민지네 아파트는 너무나도 달랐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파트 안에는 상가가 들어서있었고 상가에는 식당이며 편의점이며, 내가 평소에 시켜먹는 치킨 집 조차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었다. 아파트에 온 게 맞나 싶을 정도였다. 민지네 동으로 가는 와중에는 아파트 안에 헬스장이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민지네 집은 27층 이었다. 엘리베이터로 매일 27층까지 다닌다니. 민지네 집에 온 것 뿐 인데 웬지 민지가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 같았다. 벨을 누르고 민지네 집에 들어갔을 땐 민지네 엄마가 나를 맞아 주셨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어머, 네가 민지 친구구나. 공부 열심히 하렴. 민지네 방에 과일 있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우리 엄마와 민지 엄마를 비교했다. ‘이런 곳에 사는 엄마들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하시나.. 부럽다..’와 같은 생각을 했다. 민지의 방에 들어서자 민지는 책상에 앉아 웃는 얼굴로 나를 반겼다.

“왔어? 방 구경할래? 볼 건 없는데...”

볼 게 없다니. 민지의 방은 우리 집의 거실보다도 큰 듯 했다. 심지어 침대는 내 침대의 3배는 되어 보였다. 나는 애써 놀라지 않은 척 감정을 숨기고 공부를 시작했다. 뒤이어 오는 아름이가 민지에게

“민지야 너네 아파트 되게 좋다! 부러워.. 나도 아파트 살고 싶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감사하지만 내심 기분이 좀 안정됐다. 역시 아름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집만 좁고 허름 한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민지 집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공부했고 이번 주는 아름이네 집 차례였다. 아름이네 집은 우리 집과 그다지 멀지는 않았지만 다른 동네였다. 걸어서 15분정도. 아름이네 집은 주택이라고 했다. 나는 민지네 집 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름이네 집을 향했다. 적어도 아름이네 집은 민지네 집처럼 상가와 헬스장 같은 것은 없을 테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큰 착각 이었다. 민지네 집의 대문을 열었을 때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나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고, 우리 집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나무가 심어진 큰 마당이 있었다. 잘 정돈된 마당을 따라 가서 집 벨을 누르면, 마중 나온 아름이가 나를 향해 인사했다.

“빨리 왔네! 어서 들어와”

아름이네 집은 한 눈에 봐도 엄청 커 보였다. 신발을 벗으며 스캔한 방 개수만 4개다. 아름이는 집을 구경시켜 주었다.

“이 방은 아빠 서재야.”

아, 아름이네 아빠는 대학 병원의 의사라는 말을 언뜻 들어본 적 있었다. ‘아빠가 공부도 하는구나..’ 나는 생각했다. 밖에 일을 하고 땀 냄새가 풍기는 옷으로 집을 들어와 연신 부채질을 해대는 아빠의 모습이 머릿속에 겹쳐졌다. 아름이네 방은 의학 책들로 뽁뽁했다. 아빠를 따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름이었다. 의사가 되려면 책 살 돈도 있어야겠다.. 그렇게 나는 허망한 마음으로 아름이 집에서 일주일을 공부했다.

아름이 집에서 공부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내일이면 우리 집에 모두가 오는 데 나는 차마 좁고 허름한 우리 집을 보여줄 수 없었다. 내 열등감과 자존심이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 나를 갇아먹었다. 민지와 아름이가 우리 집을 보고는 수준이 안 맞다는 이유로 멀어지면 어쩌지. 걱정이 됐다. 그렇게 불편하게 잠을 설치고 당일 아침이 밝았다. 아직 아침 9시 인데 누군가 우리 집 벨을 눌렀다.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니, 망할. 민지와 아름이었다. 나는 애써 친구들을 반겼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같이 왔네.. 하하. 들어와”

민지와 아름이는 아마 좁아터진 신발장에서부터 당황한 기색이었다. 나는 민지와 아름이의 눈을 계속해서 피했다. 내 방에 들어갔다. 셋이 앉으니 방이 꼭 찬 느낌이였다. 겨울이라 민지와 아름이는 조금 추운 듯 했다. 나는 엄마를 불렀다.

“엄마! 보일러 좀 틀어줘!”

“보일러 고장 났어. 다음 주에 수리기사 올 거야”

나는 울컥했다. 왜 하필.. 왜 이럴 때 보일러가 고장 나는 거야.. 민지와 아름이에게는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공부에 집중했다. 아니, 나 빼고 모두 공부에 집중했다. 나는 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이번 주가 빨리 지나가길 빌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덧 해가 지고 민지와 아름이는 집에 가려고 가방을 썼다. 그때 우리 집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느린 손길로 열쇠를 비틀어 재끼는 이 소리는 안 봐도 우리 아빠였다. 민지와 아름이는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가 아빠에게 인사했다. 아빠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나는 이 추운 겨울에 땀에 젖어 퇴근한 아빠가 부끄러웠다. 민지와 아름이를 보내고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눈물을 펄펄 쏟아 냈다. 열등감이 차다 못해 터져버렸다. 나는 그렇게 2년 전 악몽 같은 겨울방학을 보냈다.

그 방학을 이후로 나는 민지, 아름이와 친하게 지낼 수 없었다. 민지와 아름이는 매번 나에게 다가왔지만 내 마음이 그랬다. 어느 덧 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집과 가까운 대학교에 붙어서 빌어먹을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게 펍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일이면 졸업인데.. 멍송 멍송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떠오르는 2년 전 기억에, 나는 눈물이 흘렀다. 쪽팔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웠다. 모두 사람 사는 집이라지만 우리 집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냥 잠을 청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생각하다가는 끝도 없이 우울할 것 같았다.

그때였다.

짜악-

누군가를 때리는 마찰음이 컿가에 울렸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나는 방 문을 열고 나갔다. 근데.... 이 집은 분명 우리 집이 아니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집은 영락없는 민지네 집이었다. 나는 일단 소리가 나는 방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그 방 문 앞에 기대어 서서 혹시나 민지가 있을까 기다렸다.

“민지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냥 집을 나가지 그래.”

문 앞에 얼마나 기대어 있었을까. 민지네 엄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와는 다른 날이 선 무서운 목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들은 마찰음은 아마 민지가 엄마에게 맞는 소리인 듯 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 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뒤 이어 민지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음악 그딴 걸 해가지고는 돈 못 버는거 네가 제일 잘 알면서 엄마 속상하게 왜 그러니.”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아마 민지의 꿈을 이야기 하는 듯 했다. 민지는 악기를 다루는 것을 좋아했다. 학교에서 밴드부도 했고 가끔 기타를 우리에게 쳐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민지였다. 그런데 민지네 엄마는 그게 못마땅 한가 보다. 나는 고민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민지 엄마를 막거나, 이 말도 안 되는 꿈 속에서 벗어나거나. 후자를 택했다. 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웠다. 나는 내 볼을 꼬집고 또 뺨을 흠씬 때렸다. 몸이 몽롱해지며 눈이 번쩍 뜨였다. 어라, 여기도 우리 집이 아닌데. 꽃무늬 벽지가 있는 걸 보니 여기는 아름이네 방이었다. 아무래도 아직 꿈에서 덜 깬 모양이었다. 꿈은 꿈이기에 나는 아름이네 방을 잔뜩 누비고 다녔다. 나도 이런 방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순간 아름이가 말 했던 아름이 아빠의 서재에 들어가 보고 싶었다. 난생 서재라는 곳을 그 때에 처음 봤으니까. 아름이네 방을 나가서 아름이 아빠의 서재 문 앞에 섰다. 그런데 그 방 문을 열어 조금은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름아, 너 이번 모의고사 2등급이 뭐니. 이렇게 해서는 의대는 고사하고 인서울 하지도 못한다는 거 네가 잘 알잖니.”

아름이 아빠인 듯 했다. 뒤이어 아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저 의사하기 싫어요. 제가 말 했잖아요. 저는 왜 제 미래를 제가 결정하지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해요”

질린다는 듯 아름이는 자신의 아빠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아름이가 의사가 되길 싫어했다니. 처음 듣는 말이었다.

“아빠가 하란 대로 하면 될 것을 왜 이리 말이 많아 !”

아름이네 아빠는 끝내 아름이에게 소리쳤다. 나는 다시 한 번 심장이 쿵쿵쿵쿵 뛰었다. 이 꿈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왜 인지 우리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어졌다. 나는 빨리 이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꼬집고 눈을 질끈 감았다

“허억!”

그렇게 눈을 떴을 땐 우리 집이었다.

“딸년아! 안 일어 나냐? 졸업까지 저러네. 으휴”

반가운 엄마 목소리가 부엌에서 내 방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아아 일어났어!”

나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엄마에게 소리쳤다. 아침밥을 먹고 있으니 아빠가 출근한다.

“우리 딸, 아빠가 졸업식 못 가봐서 미안하네. 대신 오늘 저녁에 치킨 사줄게.”

나는 아빠를 향해 웃었다. 왜 인지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집이 좋아 보였다. 민지네 집보다, 아름이네 집보다. 좋은 집은 마냥 평수가 넓고 좋게 꾸며진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었다. 무뚝뚝하게 나를 향해 소리치지만 내 걱정으로 가득 차 내심 나에게 항상 미안해하는 엄마와, 한 겨울에도 땀에 젖은 옷을 입고는 한 손에는 나에게 줄 치킨을 사온 아빠가 있는 우리 집. 집 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집. 서로를 사랑해주는 행복한 우리 집. 이게 바로 좋은 집 이었다.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수상 : LH 강원지역본부장상

부문 : 고등 산문 부문

수상자 : 창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유선아

<고해>

창틈으로 들어오는 쨍한 햇빛에 감고 있던 두 눈을 발로 비볐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니, 주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린 채 단꿈에 빠져있었다. 곧장 실밥이 터진 장난감을 물고 주인이 덮고 있는 이불을 누르기 시작했다. 내가 이불을 누른 이유는 얼른 일어나 나와 놀아주길 원해서였다. 주인은 빛을 받아 더욱 연해진 자신의 갈색 머릿결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품속에 안았다. 나는 따뜻하고 포근한 여자의 품속에서 숨을 고르게 쉬었다. 주인의 옷에서 진동하는 시원한 바다 냄새가 내 코끝을 자극했다. 하도 물어뜯어 상태를 알아보기 쉽지 않은 장난감을 입에 물고 여자를 향해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부자리를 다 정리한 주인은 내 밥그릇에 밥만 수북이 채워주고는 책상에 앉았다. 물도 챙겨주는 건 까먹지 않았다. 주인이 앉아있는 의자 밑, 장난감을 내려놓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장난감을 한 두 번 멀리 던져주고는 탐처럼 쌓인 책들만 넘겨댔다. 내가 끼익끼익하고 울어대자, 주인은 흰 줄로 연결된 무언가를 귀에 꽂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눈을 맞춰주는 주인의 모습을 보고 나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무릎을 꺾꺾 눌렀다. 주인이 간식을 한 줌 집어주는 것보다 오랫동안 눈을 맞춰주는 게 좋았다. 어느새 뒤돌아 앉은 여자의 축 처진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만큼 재밌지는 않았지만,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주인은 내 그릇에 넘쳐흐를 만큼 밥을 담았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그릇을 하나 더 꺼내 또다시 밥을 부었다. 순식간에 내 식량은 두 배로 많아졌다. 이걸 다 먹으려면 반나절 이상은 걸릴 게 뻔했다. 여자의 마음과 내 밥 양은 비례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밥을 담아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주인은 정리가 덜 된 책상 위에 쌓여있던 책들을 다급하게 가방에 넣다 두꺼운 책 하나를 떨어뜨렸다. 파란 표지 위 ‘경찰 행정법’이라고 적혀있었다. 여자는 다급히 책을 줍고는 검은 신발을 구겨 신었다.

“해피야, 오늘 시험 잘 칠 수 있게 응원해줘.”

주인의 손길에 나는 배를 보이며 현관문 바닥에 드러누웠다. 회색빛 현관문이 큰 굉음과 함께 닫혔다. 해가 지고서야 내가 있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몸을 돌리자 나를 막고 서있는 은빛 울타리와 마주쳤다. 습한 날씨 때문에 비릿한 철 냄새가 더욱 심하게 느껴졌다. 괜히 이전 집 생각이 나 울타리를 향해 왈왈하고 짖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자, 코에 울타리가 달았다. 섯내 탓에 더 이상 짓지 못했다. 비록 작은 울타리에 갇혔지만,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내게 작은 행복이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불쾌하지만 익숙한 담배냄새와 섯내가 내 신경을 자극했다.

그곳에는 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비가 오면 비를 온몸으로 맞았고, 눈이 오면 곧이곧대로 눈을 맞았다. 무더운 여름만 되면 내 몸은 금방이라도 탈 것 같이 뜨거워졌다. 그때마다 내 몸을 가릴 곳은 나보다 몇 배나 더 크고, 팔과 다리가 쪽 뻗은 그림자가 다였다. 흰 머리가 가득하고 허리가 굽은 남자는 매일 이상한 냄새가 섞인 알사탕을 입에 물고, 한 손에는 이름 모를 개들의 목덜미를 쥐고서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남자는 우리를 나눠 밥을 주었다. 산 바로 밑, 마른 아이들이 가득한 울타리 속에서는 썩은 내가 가득한 것을 밥이라 칭했다. 나는 매일 그곳에서 맛도 없는 밥을 다 비우고 토해냈다. 밥을 다 비우지 못한 날에는 남자의 심해 같은 목소리가 울려 우리를 으스스하게 할 것만 같았다. 반대편 울타리에서는 살이 제법 오른 아이들이 반강제적으로 밥을 먹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고약한 냄새와 함께 아이들은 그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고, 다신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귀가 찌질 것만 같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낮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셀 수 없이 많은 손이 비를 맞고 있던 우리를 지붕이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일주일에 한 번,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나를 보러 오는 여자가 생겼다. 맑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다. 힘없이 누워있던 나에게 뻗은 손은 파도처럼 서서히 밀려와 깊게 자리 잡았다.

사람들이 거리를 거니는 소리가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주인이 준 밥은 아직 반 이상 남아있었다. 내가 저 밥을 다 먹어야 여자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놀아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나를 안아줄 것이고, 나는 그 품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을 것이다. 꺼지지 않은 배를 달래며 밥을 입에 꾸역꾸역 넣고 씹으려 애썼다. 밥이 목까지 올라온 탓에 과거의 일이 생각나 속이 메스꺼웠지만, 다 비운 밥그릇을 보며 웃던 주인을 떠올리며 턱을 계속해서 움직였다. 그때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해가 떨어지기 전 주인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주 오랜만이였다.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진 배를 이끌고 꼬리를 흔들었다. 얼굴은 꽤 지쳐 보였다. 안 그래도 축 처져 힘없던 눈이 반쯤 풀려있었다. 주인의 옆으로 가 무릎을 두 발로 누르기 시작했다. 나를 좀 봐. 나를 보면 기분이 좋아질걸.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러나 주인은 내 머리를 한 번 쓰다듬고는 매트리스 위로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울타리로 나를 막아섰다. 순식간에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따뜻한 눈빛을 받고 싶어 밥을 먹었지만, 주인은 나를 보지 않았다. 눈과 볼이 상기된 그녀는 큰 소리를 내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대로 책상 위에 쌓여있던 두꺼운 종이들을 던졌다. 떨어지는 책과 부딪힌 내 밥그릇이 그대로 옆어져 쾅한 소리를 내며 굴렀다. 그 안에 남아있던 내 밥들도 사방으로 튀어 집은 엉망이

2020 원주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LH상 수상작

되었다. 주인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쉴 틈 없이 울어댔다. 더는 못 키우겠어. 나는 키울 자격이 없어.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울타리 앞에서 나는 하염없이 킁킁거렸다. 날 좀 봐달라고, 그런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째짤한 냄새와 흙 그리고 물이 가득한 바다였다. 주인이 바 빠지기 전 함께 와본 적이 있던 장소였다. 아까보다는 얼굴이 핀 여자와 목줄을 찬 나는 모래사장 위를 뛰어다녔다. 내 속도를 맞추지 못한 주인 탓에 목이 졸렸다. 째공기와 함께 마주한 어둠은 왜인지 무섭지 않았다. 모래사장 위, 크기가 다른 그림자 두 개가 그림처럼 겹쳐졌다. 나는 꼭 조인 목이 답답해 목줄을 빼달라며 주인의 주변을 빙빙 돌았다. 계속 경직되어 있던 여자는 조심스럽게 내 목줄을 풀어주었다. 주인과 나의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깊게 각인되었다. 나는 방대한 수평선 끝을 한참 바라보았다. 저 끝엔 뭐가 있을까. 천국이라도 지금 우리 집보다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밥을 먹고, 눈과 비를 맞지 않는 천장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았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의 미소는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할 것이다. 큰 소리를 내며 넘실거리던 파도가 모래에 새겨진 내 발자국을 지웠다. 발이 차가워 뒤를 돌았을 땐 검은 어둠이 나를 반기고 있었다. 괴물처럼 거대한 파도의 파편이 내 몸을 덮쳤다.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주변은 온통 각각거리며 우는 새들과 어느새 몸이 커진 파도만이 가득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를 적어도 다섯 바퀴를 뛰어다니며 그녀를 찾았지만, 사람의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다. 가득 차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던 배는 다시 꼬르륵거렸다. 일단 후들거리며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무작정 보이는 돌 위에 앉았다. 단순한 산책과 숨바꼭질이라 치기엔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여자의 목소리를 찾으려 애쓰다 바다에 발을 잘못 헛디뎠다. 간신히 바다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나는 물인지 피인지 구별도 안 되는 비릿한 액체를 뱉어대며 하염없이 모래 위를 굴렀다. 까마득한 하늘 위, 누군가 한 입 베어 문 것 같은 달이 두 개로 쪼개져 붉은빛을 내뿜었다. 그리고 한참을 흐렸다 뚜렷해지기를 반복했다. 문득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임을 깨달았다. 머리 위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달은 바다의 암흑을 삼키고 몸집을 점점 부풀렸다. 이 순간, 나는 무섭게 휘몰아치는 파도의 끝에 누군가가 존재하길 바랐다.